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반발… 지역 내 비판 고조

서울 중심 문화 독점구조 해소
문체부, 첫 사례 ACC 이전 결정
‘반대 서명운동’ 등 조직적 반대
“국립단체 공적책임 외면” 비난
“정책 철회 없어” 내년 이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서울 중심의 문화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자 국립 예술단체의 지역 이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광주 이전에 대한 서울예술단 측의 조직적인 반발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예술단이 공론화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집단 반대운동을 벌이며 여론몰이하는 상황은, 국립 예술단체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을 외면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6일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고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첫 과제인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 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

전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문체부는 정책의 첫 사례로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 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상반기 광주광역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실제 수도권 중심의 문화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 예술단체 공연의 86.3%가 서울에서 이뤄졌고, 같은 기간 광주는 0.5%, 전남은 0.6%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 예술단체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수도권에 편중된 공연 활동에 집중해 왔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서울에서의 공연 비율은 89.6%에 달해 문화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의 서울예술단 이전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예술 각계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전 단체로 지정된 서울예술단

은 문체부의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구성원 다수가 동참하는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직적 반발이 수도권 중심 문화 생태계를 고착화하고,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역 예술계 인사 A씨는 “서울예술단의 집단행동은 지역 문화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이자, 문화도시 광주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특히 이들이 제기한 ‘창작 환경 저하’, ‘정체성 훼손’ 등의 주장은 그간 서울 중심으로 쌓아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지역 예술계 인사 B씨는 “예술단체가 공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서울예술단의 반발이 정부의 지역 문화정책에 발목을 잡는다면 향후 다른 국립단체들의 이전도 줄줄이 무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중대한 국가

정책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예술단이 국립단체로써 선택해야 할 것은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라며 “조직적인 반발로 국가 정책에 맞서기보다, 국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역민들은 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서울예술단의 반발은 국립단체로서 적절치 않은 행태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민 김모(43)씨는 “문화예술 향유는 수도권 시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울예술단의 이전 반대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예술인 황지희(36)씨 역시 “국립 예술단체의 지역 이전은 문화 향유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서울예술단의 반발은 균형 발전을 시작하는 첫 걸음에 있어서 걸림돌이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서울예술단의 반발에도 정책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일방적

추진”이라는 서울예술단 측의 주장과 달리 수개월 전부터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 내용을 서울 예술단에 전달했고,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예술단은 ACC와 협업 관계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입주 단체라는 정체성 혼란이 있었다. 이전 결정은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창작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정책의 재고나 철회는 없다.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문화 균형발전 가속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술 단체와 지역사회 간 구조적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지현 전남대 교수는 “지역 특성과 예술단체의 역량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창작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인 양성과 문화관광 연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5월 매주 목요일 열리는 ‘목요콘서트’

광주문화재단, 오후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해 온 ‘목요콘서트’가 올해도 광주시민 곁으로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첫 ‘목요콘서트’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목요콘서트’는 △1회차 ‘펠리체양상블’의 창작 가곡 무대 ‘시문학과, 노래가 되다’ (15일) △2회차 ‘랑데부’의 ‘Rendezvous with Jazz - 시간 속의 음악 여행’ (22일) △3회차 ‘러브어스양상블’의 ‘소통과 감동이 있는 클래식 산책’ (29일) 무대로 꾸며진다.

먼저 ‘펠리체양상블’의 ‘시문학과, 노래가 되다’는 박용철·이수복·김윤식·김현구 등 호남을 대표하는 시문학과 시인들의 작품을 재해석해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김명선·조안나, 메조소프라노 김유정, 테너 박영권, 바리톤 황진원, 피아노 이승규이다.

이어 ‘랑데부’의 ‘Rendezvous with Jazz - 시간 속의 음악 여행’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재즈 공연을 선보인다. 보컬 강은영, 드럼 황의석, 색소폰 최의목, 베이스 임방울, 피아노 김태형, 해설 허영일이 무대에 올라 감각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펼친다.

마지막으로 ‘러브어스양상블’이



광주문화재단이 선보이는 올해 첫 ‘목요콘서트’로 5월15일 무대에 오르는 ‘펠리체양상블’. 광주문화재단 제공

선보이는 ‘소통과 감동이 있는 클래식 음악 산책’은 고전 클래식부터 영화·뮤지컬 OST, 전자음악,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음악회를 무대에 올린다. 출연진은 플루트 백형정, 바이올린 김관후, 첼로 이소연, 피아노 최은녕·설효선·정경희, 소프라노 김영실, 바리톤 김용원, 해설 이지향이 다.

‘목요콘서트’ 입장료는 5000원이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게 전달된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체 객석의 10% 이상(약 10석 내외)을 광주 문화누리 이용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jcf.or.kr>),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https://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 홈페이지(<https://dmgj.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062-670-7942)으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

민주화 정신 계승하다… ‘오월미술제’ 오늘 개막

31일까지 ‘생물민주주의’ 주제
12·3 계엄·탄핵과 연결한 접근
은암미술관·무등갤러리서 개최
시각 확장 ‘디지털연대전시’ 첫선

1980년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며 당대의 시대상을 예술로 담아내는 오월미술제가 8일 개막한다.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와 은암미술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올해 오월미술제는 전통있는 오월전과 포럼, 작가 토크, 새로 선보이는 ‘디지털연대전시’ 등으로 구성돼 오는 31일까지 펼쳐진다.

올해 오월미술제의 감독인 김신운작가는 ‘생물민주주의’라는 낯선 단어를 제시하며, 1980년 광주의 대동세상과 내란의 겨울 동안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집합적 경험을 예술로 풀어낸다.

올해 37회를 맞은 오월전에는 총 33명의 작가가 초대돼 회화, 설치, 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관계를 통해 살아 움직이며 진화하는지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그 생명력과 시대적 과제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생물민주주의



최대주 작 ‘사랑의 이름으로’.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 제공

선언’ 전시는 총 21명의 작가가 12·3 내란과 이에 맞선 민주주의의 재구성 과정을 배경으로, 1980년 5·18민중항쟁과 현재를 연결한다.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해방하는 신체’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일제의 폭압에 대항해 해방을 이루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우리 민중의 자유와 생명을 향한 힘을 참여작가 12명이 오늘 날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준다.

‘자연의 숨결을 따라 마음의 선을 그리다’… 김현진 개인전

11일까지 광주 남구 양림미술관
자연의 생동감 담은 회화 50여점

자연과 교감하는 화가 김현진의 여덟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8회 김현진 개인전 ‘자연의 숨결을 따라 마음의 선을 그리다’ 전시가 오는 1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생동감을 화폭으로 담아낸 회화 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현장은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의 속삭임과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의 떨림이

담긴 그림으로 가득하다.

관객들은 마치 빗줄기 사이로 자연이 끊임없이 말을 거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김 작가는 자연이 지나간 자리마다 피어난 감정의 흔적을 화폭에 남기는 작업을 이어왔다. 찰나의 자연 속에서 길러진 정서적 울림이 회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감정의 색으로 남긴 결과물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을 감상한 관객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